

**빛과 힘의 전류(사카시)를 보내줌으로써 남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애착에서 자유로워져서 무한한 무관심을 가져라**

오늘은 특별한 사랑의 날이다. 자녀들은 암릿 벨라부터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을 온 사방에서 줄곧 밥다다에게 보냈다. 모든 자녀들의 사랑이라는 진주로 엮인 화환들이 계속해서 밥다다의 목에 걸렸다. 오늘, 한편에는 사랑의 진주로 이루어진 화환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다정한 불평의 화환들도 역시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불평들이 다른 것을 바라는 보았다. 전에는 “당신은 저희들을 벌써 데려가셨어야 해요!” “저희들은 사카르 형태에게서 부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불평이었다. 올해는 불평의 대다수가 아버지와 대등해져서 바바에게 가기를 원했던 자들에게서 나왔다. 대등해지고자 하는 열의와 열성이 아주 뛰어난 자들이 다수였다. 대등해지려는 소망이 아주 깊다. “저를 당신과 대등해지게 하셔서 제가 당신께로 가게 해주소서,” 라는 것이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자녀들이 가졌던 생각이었다. 밥다다도 역시 자녀들에게 말했다. 대등해질 지어다! 완전해질 지어다! 완성될 지어다! 항상 이렇게 되는 방법은 아주 쉽다. 제일 쉬운 방법은 오늘 너희가 사랑 속에 녹아들어 있었듯이 사랑의 대양 안에 끊임없이 잠겨 있는 것이다. 너희가 다른 것을 기억했느냐? 밥다다 외의 누군가를 너희가 기억했느냐? 앉아 있거나 걸어다니면서 너희들은 계속 사랑에 잠겨 있었다. 걷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너희가 무엇을 기억했느냐? 브라마 바바의 신성한 활동들과 그의 모습이었다. 그의 형상이 너희들 앞에 있었고 그의 거룩한 활동들이 너희 의식 속에 들어 있었다. 너희들 모두 오늘 특별히 이 사랑을 경험했지? 그것이 어려웠느냐? 쉬웠지? 사랑은 너희가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힘이다. 너희는 몸도, 육신의 세상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은 너희를 애씀에서 자유롭게 풀어준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수고로움이 없다. 사랑은 너희가 쉽고 한결같이 밥다다의 손길을 너희 머리 위에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랑은 보호의 가리개가 되어 너희가 마야를 정복할 수 있게 한다. 문제들이 산처럼 아무리 커도, 사랑은 그 산을 물처럼 가볍게 만든다. 너희는 사랑 속에 잠겨 있는 방법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오늘 사랑에 합쳐진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이것을 경험했지? 너희가 다른 무엇을 기억했느냐? 그러지 않았지? “바바! 바바!” 또 “바바”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너희는 한 분에 대한 사랑 속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밥다다가 말하는데, 사랑의 대양 속에 잠겨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 외에는 다른 노력은 하지 마라. 합쳐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방법을 아느냐? 때때로 자녀들은 사랑의 대양에 합쳐지는데, 그러나 잠깐 동안만 잠겨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다. 한 순간 그들은 “바바! 다정한 바바! 사랑스러운 바바!” 하다가, 바로 그 다음 순간 대양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일에 몰두한다. 마치 바다에 잠시 몸을 적시는 사람처럼 그들은 사랑에 합쳐져서 그 속에 잠기지만 그러고는 밖으로 나온다. 잠긴 채로 있어라! 사랑의 힘은 너희를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쉽게 풀어줄 것이다.

브라민 생의 초기에 너희가 경험한 사랑이 너희를 브라민으로 만들었다. 사랑은 변화를 가져온다. 너희는 이번 생이 시작되던 때의 경험을 기억하느냐? 너희가 지식을 받고 요가를 배웠지만, 그러나 너희를 끌어당겨서 아버지에게 속하게 만든 것은 사랑이었다. 만일 너희가 사랑의 힘을 한결같이 유지하면 너희는 애씀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진다. 어쨌든 너희는 올해를 자유의 해로 축하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고로움에서 자유로워져라. 이를 위한 방법은 사랑에 잠겨 있는 것이다. 너희들 모두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아니면 경험을 못했느냐? 만일 너희들 중 누구에게 “밥다다에 대한 사랑을 가장 많이 가진 이가 누구냐?” 라 묻는다면 너희들은 각자 손을 들고 “접니다,” 라 말할 것이다. (모든 이가 손을 들었다.) 시끄러운 손 말고 너희들의 고요한 손을 들어라. 밥다다가 오늘 너희들 모두에게 이르는데, 매 과제에 사랑의 힘을 끊임없이 사용하라! 이것은 쉽지? 너희들은 몸을 잊으려고, 육신 세상을 잊고 마야의 정복자가 되려고 요가를 한다. 너희가 보호의 가리개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때 마야는 사랑으로 된 보호의 가리개 아래로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가 사랑의 대양 밖으로 나가면 마야가 보고 너희를 그녀에게 속하게 만든다. 그러니 대양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끊임없이 잠겨 있어라.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을 가진 이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랑에 넋을 잃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과제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사랑에 넋을 잃고 있었듯이 끊임없이 사랑에 몰입해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느냐? 사랑은 너희를 쉽게 대등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처럼 되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버지 브라마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지니고 있다. 아버지 브라마도 역시 자녀들에게 깊은 사

랑을 갖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모든 자녀 각자가 모습을 드러내게 해서 그들을 대등하게 만들려고 특별한 빛의 전류(사카시)를 보내준다. 지난 생에 각 보석의 가치를 알던 그는 특별한 장신구를 만들 때는 특정한 보석을 사용하곤 했다. 마찬가지로 심지어 지금도 특정한 과제에 그들의 특기를 가지고 특정한 보석들을 사용할 것을 그는 끊임없이 고려한다. 그는 각자의 특기에 대해 끊임없이 “와! 와!” 라고 노래 부른다. 와,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나의 보석! 아버지 브라마가 서틀 리전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자녀들이 많다. 그들은 “저희들은 여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브라마는 서틀 리전에서 뭘 하고 계시죠?” 라 묻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르는데, 그가 사카르 형태에 들어 있으면서 늘 자녀들과 함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지금도 그렇게 서틀 리전에 머물러 있다. 그는 거기서도 역시 자녀들과 함께 머물고, 혼자 있지 않는다. 아버지는 자녀들 없이는 즐겁지 않다. 자녀들이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역시 자녀들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거기에 그 혼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들과 같이 있다. 육신의 형태로 그의 동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자녀들의 수는 극히 적다. 지금 미묘한 형태로 그는 자녀들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각 자녀와 함께할 의무를 끊임없이 다하고 있다. 그림에서 크리스나는 고피들 각각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는데, 그것은 지금 이때의 기념물이다. 지금 아비약트 형태를 통해서 그는 낮이나 밤 언제 몇 시든, 심지어 새벽 2시나 2시 반에도 개의치 않고 각 자녀와 함께할 의무를 다한다. 사카르 형태일 때는 그가 가끔씩만 센터들을 방문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비약트 형태로 순수한 가정도 역시 방문하러 간다. 아버지가 할 일이 그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는 자녀들을 대등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 그가 할 일은 이것이다. 그것 말고 그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그는 이 일로 바쁘게 지낸다.

그래서 오늘 밥다다는 특별히 애씀에서 자유로워지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 너희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더블 라이트 상태에 머물며 그 일을 해라, 그러면 힘든 일도 일종의 여흥으로 경험할 텐데, 왜냐하면 밥다다는 자녀들이 힘들어 일하거나 투쟁하거나 혹은 이기고 지는 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금 해방의 해를 축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축하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려운 일을 하느라 분주하냐? 특히 오늘의 축복을 기억해라. 수고로움에서 해방될 지어다! 이 합류시대는 애씀에서 자유로워지는 시대다. 이것은 즐거움과 흥밋거리를 경험하는 시대다. 만일 수고로움이 있다면 즐거움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영혼들이 지고의 영혼과 함께 축하하며 즐기는 유일한 시대다. 이것은 영혼이 지고의 영혼과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대, 만남을 축하하는 시대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희가 애씀에서 해방되겠다는 결단력 있는 생각을 가져라. 너희는 자유로워질 테지? 그렇지만 너희가 여기서는 손을 들지만 집에 돌아가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 물어서는 안 된다. 밥다다는 자녀 각자의 결의에 찬 생각들을 서류철에 완전히 정리해서 갖고 있다. 더러 밥다다는 자녀들의 서류철을 본다. 너희들은 거듭 결의에 찬 생각들을 하지 않느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난 이 일을 하겠다” 또는 “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까지 그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아주 좋은 진심의 대화를 하고, 또 밥다다를 기쁘게 한다. 너희가 학생들에게 감명을 주듯이 너희는 또 밥다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 결의에 찬 생각의 영향은 단지 짧은 기간만 지속될 따름이며, 항상 남아 있지 않는다. 밥다다의 서류철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약속의 편지가 밥다다의 문서철에 추가된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쓰게 만들지 않는다.

심지어 오늘까지도 너희들은 모두 한 가지씩 생각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겠느냐? 아버지는 편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류철 안에 남아 있는지 본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등해질 때면 서류철은 끝나고 모든 것이 최종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서류철의 양이 대단히 많다. 그러니 그저 사랑에 몰두해 있고, 사랑의 대양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너희들은 아버지 브라마에 대해 깊은 사랑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이를 따르기는 어렵지 않다. 사랑에 관해서 너희들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람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한다”라고 얘기한다. 밥다다는 너희들에게 목숨을 희생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것 말고 낯은 세계를 희생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할 최종 날짜를 정해라. 다른 행사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20일, 24일” 같이 날짜를 정하는데, 그러면 이것의 날짜는 언제로 정하려느냐? (이 날짜는 밥다다가 정해주셔야 합니다.) 밥다다는 “언제”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

다. 그는 “지금!”이라고만 말한다. 밥다다가 뭔가를 다른 때로 미룬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 밥다다는 항상 “지금!”이라고 한다. 너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든, 그걸 지금 해라! 그렇지만 밥다다는 전능하기 때문에, 전능한 그는 “지금!”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자녀들은 뭔가를 그저 가끔씩만 하는 습관을 가졌었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가 자녀들에게 묻는데,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날짜를 언제로 정하겠느냐? 너희들은 언젠가는 그것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역시 “언제?”라고 묻는다.

이제 때에 따라서 모든 이가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밥다다는 때가 자녀들의 선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아버지가 너희들의 선생이거늘, 때에 따라서 뭔가가 된다는 것은 시간을 너희의 선생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것으로 너희의 점수는 감점될 것이다. 심지어 지금도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지요, 때가 되면 저희가 변할 겁니다,” 라 말하는 자녀들이 일부 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때에 따라 변할 테지만,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시간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너희 선생으로 삼지 마라. 너희들은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의,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 마스터들이며 창조자들이다. 시간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오 창조자 영혼들아, 너희의 피조물을 너희 선생으로 삼지 마라! 아버지 브라마는 시간을 그의 선생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한 무관심을 가졌었다. 그가 처음부터 자기의 몸, 마음, 부를 어떻게 썼고, 어떻게 애착을 전혀 갖지 않았는지 너희들은 보았다. 몸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바의 수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는 결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생각지 않았다. 아니다! 이것은 바바의 수레다. 나는 바바의 수레를 먹고 있지,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 몸에 대해서 무한한 무관심을 가졌다. 그의 마음은 어쨌든 만마나바브였다. 그는 자기 돈을 사용했지만 “나의 돈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입밖에 내본 적이 전혀 없다. 그의 돈이 쓰이고 있다거나 그가 재산을 썼다는 말을 언급한 일은 결코 없었다. 그는 “이것은 바바의 반다라다. 이것은 볼라나트 바바의 반다라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그 돈을 결코 자기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1루피의 값이 나가는 어떤 것도 사용한 일이 결코 없었다. 그는 쿠마리들과 어머니들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쿠마리들과 어머니들에게 양도했고,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조금도 갖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이든 호흡이든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러면서도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를 유지했다. 비록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심지어 자연마저도 그의 하인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별도의 편의시설을 사용해본 일이 전혀 없다. 그는 언제나 평범한 삶을 유지했다. 그 자신을 위해서는 특별한 물건을 결코 쓰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심지어 입은 옷도 늘 똑같은 종류였다. 그는 복장을 바꾸지 않았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건물들을 지었으나 그가 그것들을 직접 사용했느냐? 자녀들이 청했고 그는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거기서 초월해 있었다. 자녀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의 입에서는 늘, “모든 것은 다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것을 두고 실제 삶에서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 한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자녀들이 바로 그의 앞에 있고 그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가 애착을 조금이라도 가졌느냐? 그는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를 지녔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앞에 있어도 그는 무한히 무관심했다. 너희들은 저 너머에 초월해 있는 태도와 1초에 무한한 무관심을 가지는 것을 증거로 직접 보았다. 그에게는 염려가 단 한 가지뿐이었으니, 곧 봉사하는 것, 봉사하고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초연한 상태에 머물면서 다른 일체의 사물 너머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무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다. 자, 이제는 때에 따라서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가 드러나게 해라.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를 갖지 않는 한, 너희는 강력한 사카시를 주는 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따라라! 무체인 분의 측면은 옆에 젖혀두어라. 너희들에게는 육신의 형태를 가졌던 아버지 브라마가 있었다. 신체적인 성취를 위한 편의시설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녀들 모두에 대한 책임을 맡았고 모든 역경과 문제들을 직면해야 했으며, 합격할 수 있었다. 그는 우등 합격의 증서를 차지했다. 주된 이유는 그가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를 유지한 데 있다. 지금 이때에는 금으로 만든 사슬이라는 미묘한 애착이 있다. 깊고도 미묘한 애착이 아주 많다. 자기들이 언제 애착을 가지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다. 그들은 어떤 것이 애착일 경우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은,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기 마련이야. 이것은 항상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그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늘 계속해서 일어날 거야.” 갖가지 유형의 애착들이 너희가 무한한 무관심을 가진 자가 되게 놔두지 않는다.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나는 그것이 되길 원한다!” 라고 생각도

역시 한다. 그러나 되고자 하는 소망이 실제로 되는 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소망이 더 크고, 실제의 실천은 더 적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무관심의 태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그것이 다시 나왔다가는 도로 들어간다. 시간은 어쨌든 그것을 할 테지만, 너희는 우등으로 합격할 수 없을 것이다. 합격은 하되, 우등으로는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의 속도는 아주 빠르고, 노력의 속도는 매우 느리다. 서툴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너희는 미묘한 애착에 묶이게 된다.

자녀들이 부르는 “저희들은 당신과 함께 날기를 원합니다,” 라는 노래를 들으면 밥다다도 역시 너희가 날도록 만들기를 원한다만, 너희들의 애착이 너희로 하여금 날게 허용할지 여부와 너희가 여기에도 있지 않고 거기에도 있지 않은지 여부가 궁금하다. 자, 이제는 때에 따라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무한한 무관심을 가진 자가 되어라. 마음에 무관심이 들어있게 해야 한다. 행사의 결과 나타나는 무관심은 일시뿐이다. 너희들의 미묘한 애착을 점검해라. 이제는 큼직한 측면들은 끝났다. 일부 자녀들은 큼직한 애착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미묘한 애착들은 참으로 미묘해서, 그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점검해라, 아주 깊이 체크해라. 완성의 거울에 비춰보며 너희들의 애착을 점검해봐라. 기억의 날인 오늘, 이것을 아버지 브라마에게 선물로 주어라. 너희는 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으니, 사람은 사랑할 때 뭘 하느냐? 선물을 준다. 그러니 이 선물을 주어라! 너희를 해변에 묶어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떨치고, 자유로워져라. 자녀들이 열의와 열성을 가진 것이 밥다다는 기쁘고, 너희는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생각도 하고 있다. 자, 이제 그 생각들을 실현해라. 앗차.

이 나라와 외국, 어디서든 사랑 속에 잠겨있는, 사랑이 많은 자녀들 모두에게, 사랑의 대양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끊임없이 합쳐져 있는 극히 가까운 영혼들에게, 아버지 브라마의 특질들을 자기의 실제 삶 속에 끊임없이 접목하는 고결한 영혼들에게, 노력에서 해방되어 즐거움을 경험하며 신의 사랑으로 날아다니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대등해지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자들에게, 마음의 위로자인 바바의 가슴속에 잠겨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아버지 브라마가 보내는 수수수백만 곱절의 사랑과 기억을 부디 받아다오. 밥다다는 끊임없이 자녀들의 가슴속에 머물러 있다. 비록 서툴 리전에서 살지만 그는 또 자녀들의 가슴속에서도 살고 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를 가슴속에 담고 있는 자녀들에게, 밥다다는 여러 쟁반 가득히 담긴 진주와도 같은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를 보낸다.

**축 복:** 지식으로 충만한 마스터가 되어서, 트리칼다르시인 너희의 단계로 시간의 세 측면을 또렷이 경험해라.

트리칼다르시의 단계에 안정해 머무는 자들은 1초에 시간의 세 측면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내가 어제는 무엇이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양 아주 뚜렷하다. 어떤 이가 도에서 제일 높은 지점에 서서 도시를 굽어본다면 그는 대단히 즐겁다. 마찬가지로 합류시대는 최고의 지점이다. 여기에 서서 시간의 세 측면을 보고, 대단한 도취감으로 말해라. 우리들은 신인이었고, 우리는 다시 그렇게 될 자들이다. 이를 두고 지식으로 충만한 마스터가 되는 것이라 한다.

**슬로건:**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다. 이 인식을 지니고서, 항시 준비된 상태로 있어라.

\*\*\* 음 샐티 O M S H A N T I \*\*\*